

완도 약산면 다시마 유기 수산물 인증 어가수 최다

36개 어가...생산 면적 122ha 안전성 확보...소비촉진 기대

완도군은 약산면 해동리 다시마 생산 어가 36개소(122ha)에서 친환경 유기 수산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다시마 품종을 기준으로 어가 수는 전국 최다, 생산 면적은 전국 최대이다.

2019년 12월부터 약산 해동 어촌계 어민들과 컨설팅·유통·가공 업체인 NP오션플러스, 대한물산, 씨플러스와 협업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유기 수산물 인증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식용 양식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한 후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질, 방사능·중금속 등 성분 검사, 어가별 생산 및 출하 일지 기록, 위생 교육 수료 등 서류심사와 현장 심

사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획득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소비 촉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남 본격적인 다시마 생산 시기를 맞은 해동리 어촌계를 방문해 유기 수산물 인증 획득을 축하하고 어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군수는 "친환경 유기 수산물 인증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꼭 필요하며 해동 어촌계에서 다시마에 대한 인증을 최다 획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 수산물 인증과 더불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MSC 등 확대 추진을 통해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완도 해조류의 맛과 효능 등을 적극 홍보하고 해조류를 주제로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해조류산업 발전을 앞당길 방침이다.



약산면 해동리 어촌계 제5-20-0007호 전국 최대 "유기다시마" 인증 획득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어촌계 주민들과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31일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유기 수산물 인증 획득을 기념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한편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올해 초 완도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는 따뜻한 기온과 안전한 조수차로 다시마와 김, 미역

을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학생승마체험' 인기 체력증진·여가문화 조성



영광 승마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학생승마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학생승마체험은 한국마사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습비의 70%를 지원한다. 강습비용은 전체 강습비인 30만원 중 10만원만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참여 대상요건으로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신청 가능하며, 강습과정은 초급과정으로 매주 2회씩 전체 10회가 진행된다.

영광 승마장은 전남 최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으로 총 부지면적 24744㎡에 시설면적 4524㎡의 규모이다.

관리사, 사위실, 마방, 교육관, 마장, 방목장 등의 시설과 전문 마필교육을 이수한 승마교관 3명의 강습인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33억원을 투입해 '영광 실내승마장'을 신축하여 참여 대상 모두가 기상에 관계없이 사계절 전전후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승마는 신체 단련은 물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 안정효과가 큰 운동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승마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군, 고소득형 패류 바지락·백합 등 27t 살포

신안군이 압해읍 장감리 등 11곳에 고소득형 패류 27t을 살포한다

갯벌어장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사업비 2억6700만원을 들여 바지락 12t을 시작으로 증도 방축 지선 등에 백합 13t, 압해 대벌 지선에 가무라 2t을 각각 살포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서식지가 각각 다른 만큼 품종별 서식 환경 특성과 살포 지선 내 자연산 종묘가 자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패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패류 살포로 자원량 회복은 물론 관광객 체험관광 활용,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패류 자원량 증강을 위해 백합 등 총 105t을 살포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바다 지키자' 해안 환경정화활동 진도군수협,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진도군수협분회, 진도서초, 지산중학교 학생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지난 28일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민·관 합동으로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진도군 제공>

목포시 청년정책 발굴 강화 정책위원 20명 위촉장 수여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했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정책위는 '목포시 청년발전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지난 2018년 처음 구성됐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된 후 지난 4월 청년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번에 당연직 위원 6명, 시의원 1명, 관계전문가 5명, 청년 8명 등 20명이 청년정책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청년정책 수립 확대, 청년고용대책 수립,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청년의 권리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시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명품 농산물 '해남 미니 밤호박' 본격 출하

3000여 농가 연 200억원 소득

해남군의 대표 특화작목인 미니 밤호박 수확이 시작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 3000여 농가가 80ha 면적에서 밤호박을 재배, 연간 2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군은 2005년 미니 밤호박을 특화작목으로 지정,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냉해 예방 자재를 20ha에 지원하기도 했다.

미니 밤호박은 올해 해남에서 3150여t이 생산될 예정으로, 1주일 가량의 후숙기간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가격은 8-12과가 들어있는 4kg 한 박스에 2만 5000원선에 직거래되고 있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단호박은 시설하우스와 친환경 그물망 시설을 이용해 공중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흠이 달지 않아 깨끗하고, 품질이 월등한 것이 특징이다. 밤맛이 나는 포실포실한 식감으로 '밤호박'으

로 불리며, 전국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특산물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미니 밤호박은 일반 단호박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 C 등이 풍부해 감기예방과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수섭 (주)해남밤호박 대표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이상저온 현상이 심하지 않았으며, 기상호조에 의한 일조량 증가로 고품질의 맛있는 밤호박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